

## “믿음의 쟁의”

요4:43-54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땅도 적고 자원도 없고, 힘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구는 통틀어서 600 만 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하나의 보화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칼라일도 말하기를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려면 경제성장 정치 안정이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큰 나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 1.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말씀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요,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섯개로 분리된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로 그 기름을 이집트에서 퍼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미국의 석유회사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에는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출애굽기 2 장을 읽다가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출 2: 3 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영어로 피치(Pitch)인데, 피치는 바로 석유라는 말인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피치 즉, 콜타르를 가지고서 그것을 발라서 아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은 참말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콜타르에서 나오는 피치로 갈대상자를 발랐다고 했으니 그곳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석유 전문가인 찰스 헛샤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집트 현지를 답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떠내려 보냈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되어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킬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창 15:13-14 낭독)**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속아서 안 됩니다. 만약에 현실과 약속이 충돌하면 나는 현실에 절대 속지 않는다고 외쳐야 합니다.

### 2. 믿음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50 절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믿고 순종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람의 항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른채 일단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성경 히브리서 11:8 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더 귀합니다. 사무엘상 15 장 22 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만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경학자 베이커는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불란서 사상이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단호하며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불신앙, 공포, 의심되는 일이 다가오면 그것을 믿을 것인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믿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은 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란 것은 믿겠다라는 당사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성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 3. 믿음에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무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표를 세우면 집중하게 됩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불을 일으키듯이, 목표를 세우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롬 4:17)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를 것이라고 바라보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스크린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비추어 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순종을 위해 과감히 포기한 것(내려 놓은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포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셨는지도 나누어 주십시오.
4. 2014년 한 해 동안 '바라봄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음 속에 그리고 있고 믿어지는 영롱한 꿈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 4월 20일에 예정된 새생명축제를 위한 VIP선정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명단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헤아림을 통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다는 그러한 꿈을 갖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난을 주님께서 오셔서 대신 짊어지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후 8:9)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것이 된 내 모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꿈꾸고 계획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늘 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이다." 믿음을 통해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넘치도록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